

# 김산호 회화극본

## The story of Holy Buddha

# 부처님

### 제3화 태자비 ㉔



**이**명의 날, 세 번째 무술 경기의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다. 그날의 경기는 말타기였다.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말타기만은 모두 자신들이 있었다. 모두가 귀하신 왕자들의 신분이었다. 사실 걸어다니는 것보다 말을 타는것이 훨씬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막상 경기가 벌어지자 시험관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작은 공을 힘껏 던졌고 왕자들은 그 공을 추격하며 화살을 날려 명중시켜야 했다.

처음에는 한 두 명의 성공한 왕자들도 있었지만 경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공은 점점 더 작아졌고 던져지는 속도

또한 점점 빨라지는 바람에 한 명 두 명 탈락해 갔다. 다만 싯다르타 태자 한사람만이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명중시키며 그 신출귀몰하는 묘기를 과시하였다. 구경하던 관중들 뿐 아니라 참가했던 다른 나라 왕자들도 감탄하며 깨끗이 승복하고 말았다.

마침내 대망의 우승은 싯다르타 태자의 것이 되었다. 작은 나라 카필라바스투의 싯다르타 태자가 주위 강국의 왕자들과 당당히 겨루어 크게 승리하며 그 위세를 만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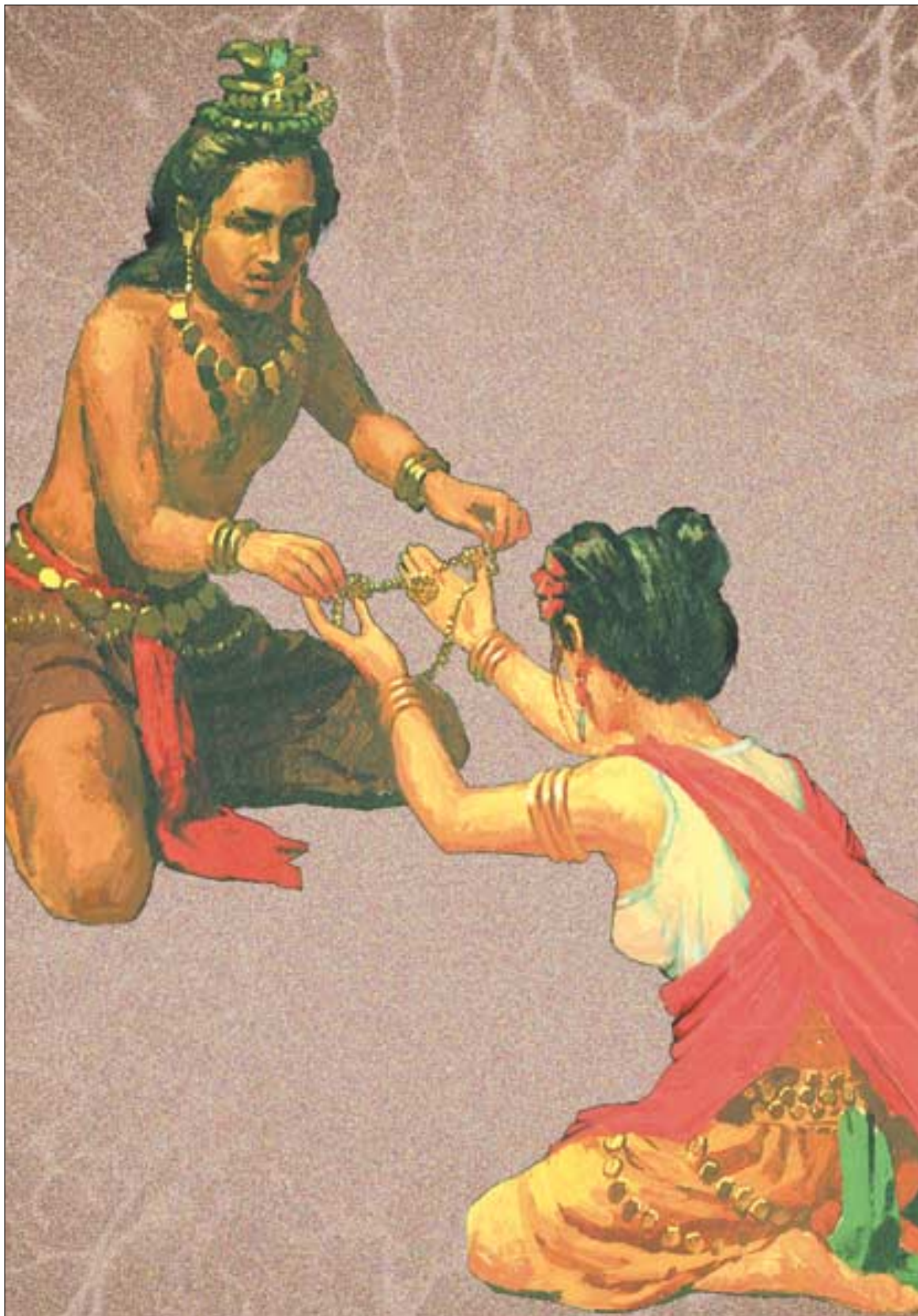
**이**리하여 싯다르타 태자는 숲파뚏다 2세(善覺) 라자의 앞에 나아가 그 옆에 숨을 죽이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있던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를 얻게 되었다.

어차피 승리의 전리품이 되고 말 운명의 야소다라 공주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. 그러나 마침내 최후의 승리가 뜻밖에도 외사촌간이라는 가까운 친척인 동족(同族) 사카족의 태자로 결정되자 공주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하였다. 드디어 공주의 주인이 될 왕자대회의 우승자 싯다르타 태자가 의기 양양하게 공주앞에 다가왔

다. 그의 준수한 모습을 훔쳐 본 공주는 얼굴에 밝은 희색이 피어 올랐다. "어쩔 이렇게 잘 생긴 왕자님이..."

공주는 거듭 오늘의 운명을 정해주시는 신(神)에게 감사드렸다. 싯다르타 태자는 자신의 영락장신구(瓔珞裝身具)를 벗어 결혼예물로 공주에게 넘겨 주었고, 공주는 이를 공손히 받아들임으로써 태자의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.

이리하여 야소다라(Yasodhara-耶輸陀羅) 공주는 카필라바스투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(Gotama Siddhartha-義成悉多太子)의 정비(正妃)가 된 것이다.



**야**소다라를 정비로 맞은 싯다르타 태자는 부왕 솏도다나 라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생(生)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깊은 사색에 빠져든다. 이에 깜짝 놀란 부왕(父王) 솏도다나 라자는 불현듯 태자가 전륜성왕(轉輪聖王-차크라 바르틴) 대신 부처님이 되려고 출가(出家)할지도 모른다는 아시아 선언의 예언이 생 각나며 커다란 불안감에 싸이게 되었다. 이러한 근심은 대왕의 충직스러운 대신들도 다 마참가지어서 태자의 관심을 좀더 현세의 즐거움 쪽으로 유혹하여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.

젊고 혈기왕성한 태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보다 더 좋은 묘약은 없다고 판단하고 태자에게 두번째의 부인을 맺어주기로 하였다. 그 결과, 같은 사카족의 일문(一門)으로 단다파니 라는 부호의 아름다운 딸을 태자의 두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니 그녀가 바로 고평(Gopa-喬比迦)부인이었다.

**이**후에도 또 한명의 태자비가 간택되어 들어오니, 역시 사카족의 귀족 카라크세마의 딸로서 마노다라(Manodhara-麤野夫人)였다. 이리하여 카필라바스투성안에 세 채의 궁전들이 세워졌고, 이들 세명의 태자비(太子妃)들이 각각 세 개의 궁전에 거주하게 되니 후에 흔히 불전에서 말하는 '삼시의 궁전(三時殿)'이 바로 그것이다.

부처님에게 제 2, 제 3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독자도 있겠지만, 그 당시에 일국의 태자의 신분으로 두 세 명의 부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.

정비 야소다라

제2비 고평

제3비 마노다라

